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25(금) ~ 2025.7.31(목)

제공일시 2025 8 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7.25(금) ~ 2025.7.31(목)

글로벌 정책

1. 美 내무부, 광산 폐기물서 전략광물 확보 나선다

- 미국 내무부가 폐광 및 광산 폐기물에서 희토류·리튬·코발트·우라늄 등 전략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 장관이 광물 회수 사업에 연방 자금을 지원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함
- 내무부는 광산 폐기물, 석탄 폐석, 폐우라늄 광산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략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7.27\)](#)

2. 湄 최초 국경간 풍력발전, 베트남 송전 개시

- 동남아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단지이자 라오스 최초의 풍력발전소인 '몬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이달부터 베트남으로의 전력 송전을 시작함. 아세안(ASEAN) 지역 최초의 국경 간 풍력 전력거래임
- 이는 10여 년에 걸친 양국 간 협상 끝에 맺은 성과로, 아세안 파워그리드(APG) 구축 및 역내 전력거래 확대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음
- 몬순 풍력단지는 라오스-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33기의 대형 풍력터빈으로 총 600MW 용량임. 이번 사업을 위해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해 해당 전력을 베트남으로 직접 송전함

[\(투데이에너지 2025.7.30\)](#)

3. 유럽 ECB, 기업채 담보 평가에 기후 요인 반영... 전환 리스크 따라 가치 차등

-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통화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기후 요인(climate factor)'을 담보 평가 기준에 도입함. ECB는 유로존 내 시중은행에 대출을 집행하는 유로시스템(Eurosystem)의 담보 프레임워크에 기후 전환 리스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기후 요인은 비금융기업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한 시장성 자산에 우선 적용됨
- 자산별 평가는 ▲2024년 유로시스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행기업의 CSPP(Corporate Sector Purchase Programme) 기후 점수 ▲잔존 만기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이 요소를 통합한 '불확실성 점수(uncertainty score)'에 따라 담보 가치가 차등 조정됨

[\(임팩트온 2025.7.30\)](#)

국내 정책

1. 李 대통령 "국민·기업 참여하는 100조 규모 국민펀드 조성...미래전략산업에 투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주재했음
-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음

[\(메트로신문 2025.7.30\)](#)

2. 민주,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업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킴.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임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산재예방TF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음. TF는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실태조사와 각계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법안을 처리에 나설 예정임
- 중점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제고, 도급·하청 구조 개선,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산업안전 분야 현장 점검 강화, 입법·제도 개선 추진 계획 수립임

[\(디지털타임스 2025.7.28\)](#)

3. 환경부, 기업 온실가스저감 예산 90% 소진... 李정부 탄소중립 '제동'

-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지원사업' 예산의 90%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거래제 참여 업체에게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0여 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예산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올해는 기업신청이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 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임
- 기업의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대폭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올해 배정된 해당 사업 예산은 1079억원인데, 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수요는 1698억원으로 집계됨

[\(뉴스핌 2025.7.24\)](#)

글로벌 기업

1. 美 진출하려던 中배터리 기업, 줄줄이 공장 건설 중단

- 글로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강자인 중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진출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음
- 중국 배터리 기업 AESC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던 공장의 공사를 중단했음. 회사는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공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음. 고선 하이테크 역시 미시간주에 건설 중이던 공장 가동을 무기한 보류함. CATL도 테슬라, GM, 포드 등과 협력하며 기술 협력, 장비 공급 등을 해오면서 미국 직접 진출을 고민했지만, 사실상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한국경제 2025.7.30\)](#)

2. 美 홀텍, 팰리세이즈 원전 재가동 승인...현대건설, SMR 수주 가시화

-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미시간주 팰리세이즈(Palises)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
- 이를 위해 홀텍은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맺었음. 현대건설과 홀텍은 올해 4분기에 팰리세이즈 SMR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더트래커 2025.7.26\)](#)

3. 엑손모빌, CCS로 수익 창출 실험...연료전지 활용한 에너지·탄소 통합 모델 가동

- 엑손모빌이 탈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와 수소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차세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의 상용화 실험을 시작했음
- 엑손모빌 베네룩스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제조단지에서 고온형 탄산염 연료전지(CFC) 기반 CCS 파일럿 설비 건설에 착수했음. 설비는 천연가스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하면서, 동시에 전기·수소·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

[\(임팩트온 2025.7.28\)](#)

4. BP, 50조원 호주 수소서 손 떼고 美 최대 EV 허브 개장

- 영국 석유 메이저 BP가 호주 그린수소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도, 미국에는 최대 규모 전기차 충전 허브를 개장함. BP는 수익성 악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에서 화석연료 에너지 위주로 사업을 재편사업을 재편하고 있음
- 올해 2030년까지 300억달러(약 41조원)로 계획했던 저탄소 에너지 투자를 40억달러(약 5조원)로 대폭 줄이면서, 수익성 기준에 따라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7.28\)](#)

국내 기업

1. LG엔솔, 테슬라에 6조 ESS 배터리 납품한다

-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6조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를 공급함. LG가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납품하는 건 이번이 처음임. LG와 테슬라가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 실제 공급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음

- 미국 정부의 '중국 부품·소재 배제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중국 CATL 배터리를 써온 테슬라가 LG로 갈아탔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3사를 향한 미국 기업의 '러브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 2025.7.30\)](#)

2. 현대차, 호주 AMQ와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현지 생산 체제 구축

- 현대자동차가 호주 기업 AMQ(Advanced Manufacturing Queensland)와 손잡고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Xcient)'의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했음. 현대자동차가 호주의 수소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스코트 나가르 현대차 호주법인 미래모빌리티 부문 수석은 "퍼스, 질롱, 포트캠블라, 타운스빌 등지의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양으로 이미 고객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음

[\(더구루 2025.7.30\)](#)

3. "에너지 고속도로 중추"... 효성, 국내 최대 HVDC 변압기 생산기지 첫 삽

- 효성이 미래 전력망의 핵심 기술인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압기 생산기지 구축에 나섰다. HVDC 변압기 공장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내 부지 약 2만9600㎡에 들어설 예정으로, 2027년 7월 완공됨

- 효성중공업은 공장 신축 약 2540억원을 포함해, HVDC의 핵심 설비인 '대용량 전압형 컨버터 시스템' 제작시설 증축, R&D(연구개발) 과제 수행 등 HVDC 사업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포스트저널 2025.7.30\)](#)

4.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호주 재생에너지 인프라 사업 입찰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너지공사(EnergyCo)는 28일, 뉴잉글랜드 재생에너지 구역(REZ) 네트워크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의향서(EOI)를 제출한 6개 컨소시엄을 공개함

- 삼성물산은 세계 2위 재생 에너지 기업 스페인 이베르드롤라, 스페인 인프라 기업 페로비알, 호주 인프라 투자사 카펠라캐피탈, 말레이시아 건설사 가무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향서를 냈음. GS건설과 현대건설은 호주 전력회사 오스넷, 호주 투자회사 퍼시픽 파트너십스, 이탈리아 건설사 겔라, 호주 건설사 CPB 등과 입찰에 참여함

[\(더구루 2025.7.2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7.25(금) ~ 2025.7.31(목)

제공일시 2025.8.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398.6432

호주, 수익보장형 입찰제 확대...BESS 전환에 18조 민간 자본 몰린다

- 호주 정부가 전력 인프라 투자 정책인 '전력투자계획(CIS)'의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25% 확대하기로 결정함.
- CIS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하한선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수하는 구조의 수익보장형 입찰제도임
- 2030년까지 총 40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건설을 보장할 예정으로, 기존 목표보다 8GW 증가한 수치임
- 추가된 8GW 중 5GW는 대규모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BESS) 장치, 3GW는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약 100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임
-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82%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할 계획임
-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가격 하락과 함께, 수익보장형 입찰제(CIS) 확대로 민간 투자 유인이 커졌으며, BESS 분야에만 약 18조17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도입 이후 여섯 차례 입찰을 통해 6.4GW의 발전설비와 2GW의 저장설비가 확보됐으며, 총 14조1400억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유치됨
- 최근 16GWh(기가와트시) 규모 ESS 입찰에는 135GWh의 제안이 몰리고, 6GW 발전설비 입찰에는 25GW 이상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음
- 정부는 과잉 수요에 대응해 입찰 주기를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2025년 말까지 4건의 추가 입찰을 예고했음. 이를 통해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임
- 시장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에도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우드맥킨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음

[\(임팩트온 2025.7.30\)](#)